

interview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

“창종정신 자주적 계승”

7일 신년기자 간담회...신행문화개선·해외교류 등 중진발전 비전 제시

“진각문화 전승원을 10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2월 7일 종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의 정책 목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 ‘창종정신의 재발견과 자주적 계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각종 조인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진각종 창종의 시대적 의미를 참회 및 실천을 강조하는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행과 포교라는 종단의 이원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는 진각종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경주시 신내면

에 마련한 30만평의 부지를 교육도량화 해 경기명상과 위빠사나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문화포교에 특히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 전문적인 문화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안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 종단 내 단체인 진각문학, 진각음악회, 차문화회 등을 주축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진각종도들을 총규합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종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에도 많은 활동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북한 만경대 건너 두루섬 협동농장에 약 1000평 규모의 온실을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해외 쪽으로는 스리랑카와 네팔에 JGO 현지 법인화를 통한 시설증축에 들어갑니다. 해외 심인당을 지원해 교포 2, 3세대의 한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 군중법사 파견에 대한 진각종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별개로 군법사 파견을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조계종에서 대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종단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도자상은.
-정파를 떠나 화합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불자들이 정견을 가지고 주권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가동

진각종 봉행위 구성...사업·행정·성역화 분과 등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회(봉행위원장 회정, 이하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념사업회 봉행위원장 회정 정사는 2월 1일 집행위원장에 총무부장 회성, 자문위원장에 교육위원장 경정 정사 등 총 14명의 추진위원들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차회의 신념을 갖고 기념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와 더불어 실무추진기구로 기념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회정, 행정분과위원장(위원장 지정), 성역화사업분과위원장(위원장 무외) 등 총 3개 분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분과는 각종 기념사업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행정분과는

기획, 회의 및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 성역화사업분과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가칭)진각문화전승관 컨테이너 및 개발과 조성 등을 맡는다. 한편 자문위원에는 종의회의장 해인, 사감원장 겸 부산교구청장 해명, 前 총리원장 효암, 서울교구청장 수성, 대구교구청장 관천, 대전교구청장 유영, 경주교구청장 상재, 포항교구청장 무외, 전라교구청장 직무대행 도진 정사 등을 위촉했다. 추진위원은 경당(교육부장), 경일(진각대 사무처장), 정호(총무부장), 원암(기획국장), 범경(포교국장), 원주(건설국장), 덕운(전산국장), 법정(지원실장) 주교, 덕정(법륜실장) 주교, 일화(선해심인당주교) 정사 등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지도자 사명과 역할 모색

조계종 교육원, 승탑 연차별 연수일정 발표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모색하는 불교 지도자 연수일정을 발표했다. 승탑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2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승탑 20년차를 대상으로 열리는 ‘제6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승탑 25년차를 대상으로 열리는 ‘제6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각각 열린다. 연수 주요내용은 △불교지도자론 △불교지도자 적성검사 △리더십(개론/맥스웰 리더십 △지역지도자

로서의 역할 △종교인구 변화분석 등이다. 10년차 이상 연수 신청자는 3월 16일까지, 20년차는 23일까지, 25년차는 2일(2011-1807)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각 40명. 입교비는 25만원.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주지스님은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제2회 불교지도자 연수를 이수한 스님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직능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남동우 기자

수덕사 주지 후보에 응산 스님 선출

예산 수덕사 차기 주지 후보에 응산 스님(예산 향천사 주지·사진)이 추대됐다. 수덕사는 2월 3일 임회를 열고 오는 3월 1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현 주지 법정 스님 후임에 응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응산 스님은 총림법에 따라 덕종총림 방장 원담 스님 추천으로 4년 동안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응산 스님은 취인 수탁사를 통해 “방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선지종찰 수덕사의 수행가풍을 계승하며 미래 한국불교 동량을 양성하는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응산 스님은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71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75년 망월사 수선안거 이래 30여년간 성만했으며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충남경찰청 경승지단장 등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불학연구소 조직·내실 확대

요경 스님·서재영·조명제 박사 등 영입...각종 편찬사업 활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몸을 바꾸고 있다. 덩치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풍성해지고 있다. 조계종 중지종풍에 맞는 이념과 교육, 수행을 전파하는 고유 역할에 충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학연구소는 최근 기존 김광식·서수정 상임연구원 외 서재영 선임연구원과 요경 스님, 조명제 박사를 상임연구원을 채용했다. 동국대에서 ‘선(禪)의 생태철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재영 연구원은 불학연구소 연구실무와 기획총괄업무를 맡는다. 특히 조계종이 중점 추진해왔던 간화선 수행법 대중화 및 사회화와 30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전통사상서> 번역출판사업의 주요 연구를 담당할 계획이다.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요경 스님은 불학연구소에서 <간강경> <반야심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을 담당할 예정이다.



요경 스님



서재영 선임연구원



조명제 상임연구원

조명제 박사는 한국선종사와 동아시아불교사 전공이다. 조 박사는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조계종 선원 청구 편찬 사업을 담당한다. 불학연구소 예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2억6460여만원에서 올해 3억5354여만원으로 25%인 8894만원도 상승했다. 불학연구소는 증가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간화선> 영역과 개정판 발간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행중심 진작 일환으로 진행해온 수행법 입문서 발간에 이어 <간강>과 <주력> 입문서도 발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종단 정체성을 조명하는 ‘종단사 세미나’를 열고, <도서> <선요> 완성판, <처론> 시험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명연 스님은 “종단이 안정되고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연구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며 “종단의 중심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법회 지원사업 실시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 법회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선정된 사찰에는 개설지원금 협조, 포교관련 자료, 어린이 지도자 연계 및 여름·겨울 불교학교 지원 혜택이 우선 제공된다. 조계종 등록 사찰로서 어린이 2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매주 1회 어린이 법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찰이며, 어린이 법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인을 확보한 사찰은 지원 가능하다. (02)2011-1904 남동우 기자

통도사 산중총회 3월 6일

영축총림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6일 오후 2시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3월 1일부터 3일까지 통도사 중무소에서 구성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고창 선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5일 오후 1시 선운사 중무소에서 열린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부선지사: (051)8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삼론종 제3세 종정 대정당 이혜공대종사님의 추대를 축하합니다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 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대정당 이혜공 대종사 3세 종정 추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 장 소: 충북 충주시 오암동 540-10 후랜드리호텔 크리스탈홀 (043)848-9900
■ 문 의: 삼론종 총무원 / 전화: (02)937-0343
◆ 종 정 대 정 석혜공
종정사서실장 석지영
◆ 부 종 정 각몽 석혜승
◆ 승 정 석추봉 대안(大安)
승 정 석혜광 혜광(慧光)
◆ 총무원장 석진봉 진봉(眞峰)
부 원 장 석해불 해불(海佛)
총무부장 석혜원 혜원(慧元)
교무부장 석지향 지향(志香)
규정부장 석지법 법산(法山)
사회부장 석석진 성희(性希)
재무부장 석도희 도희(道希)
◆ 종회 의 장 석지경 지경(志敬)
부 의 장 석해불 해불(海佛)
◆ 사 정 원 장 석지운 지운(志雲)
부 의 장 석도우 도우(道友)
◆ 포 교 원 장 석인봉 인봉(仁捧)
부 의 장 석보원 보원(補元)
◆ 교 육 원 장 석도경 도경(道鏡)
부 의 장 석명재 명재(明宰)
◆ 수 선 원 장 석지심 지심(志心)
부 의 장 석성심 성심(聖心)
◆ 문 화 원 장 석성봉 성봉(承峰)
부 의 장 석지학 지학(志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추대 위원회 일동